



2024-29

부평문화포럼

직원 라운드 테이블 기록집

우리가 점검하는 부평구문화재단

2024.11.6.($\frac{\star}{7}$) 14:00

부평아트센터 3층

부평구문화재단
02-26292666, 1998-7123 59034488

中国
 经济
 地理
 学
 地
 理
 学





부평문화포럼

직원 라운드 테이블 기록집

우리가 점검하는 부평구문화재단

1부 | 부서별 발제

- 기획경영본부 | 문화사업의 구심점 제시, 조직 운영 방향성

기획조정팀 김유정

- 도서관본부 | 부평구문화재단의 브랜딩을 위한 전략

부개어린이도서관 이수연

- 문화사업본부·문화도시센터 | 사업융합과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 기초

시민연대팀 김가람

2부 | 자유 토론





- **기획경영본부 | 기획조정팀 김유정**
문화사업의 구심점 제시, 조직 운영 방향성
- **도서관본부 | 부개어린이도서관 이수연**
부평구문화재단의 브랜딩을 위한 전략
- **문화사업본부·문화도시센터 | 시민연대팀 김가람**
사업융합과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 기조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 배운수입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있기까지 지난 10월 23일, 25일, 그리고 29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와 문화도시센터, 도서관본부 마지막으로 청소년 3개 기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꿈나래터까지 부서별 간담회 즉,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네 차례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기획경영본부의 김유정 기획조정팀장이 재단 문화사업의 구심점과 이에 따른 조직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도서관본부에서는 부평문화재단이라는 브랜드 인식을 위한 사업적 연계 필요성, 마지막으로 문화사업본부에서 우리 재단의 문화사업의 융합을 위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사업의 구심점 제시, 조직 운영 방향성

• 기획경영본부 | 기획조정팀 김유정

김유정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장

소개받은 기획조정팀장 김유정입니다. 이곳에 서니 뭔가 색다른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단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지켜본 직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재단은 정관 2조에도 명시되어 있듯 지역문화진흥과 부평구민 문화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습니다. 2006년 11월 24일 법인 설립이 허가됐고 2007년 사무국, 부평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까지 총 16명의 정원으로 시작했고 그 당시 예산은 9억 4천2백만원 정도였습니다. 2009년 부평아트센터, 2011년도에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개도서관, 갈산도서관, 다음 해인 2012년도 문화사랑방까지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에서 역사박물관 위탁계약이 종료되었고 추가로 삼산도서관, 부개도서관을 거쳐 현재와 같이 총 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기존 청소년수련관 내 하나의 팀으로 있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했습니다. 2017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하고 문화 특별사업, 문특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지정까지 연결되었고 2022년에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위탁, 2024년 청소년꿈나래터 위탁 운영계약을 마지막으로 현재 부평구문화재단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8



- 알고 있고 이용한 적이 있음 13.5%
-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용한 적 없음 51.2%
- 전혀 모름 35.3%

그러니까 재단을 알고 있는 분들이 64.7%이지만 재단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분들이 86.5%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0만여 명의 이용자는 어디로 도망간 것입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140만여 명의 이용자들을 만났는데 설문 결과는 10명 중에 9명이 재단의 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단 하나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모르지만, 제 각각의 시설 그러니까 6개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등 각각의 운영 시설은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본부나 기관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흐름을 분석하여 우리가 하는 문화사업을 통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업을 계속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올시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인지 판단하여 때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일몰시킬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우리 조직에는 그런 분석과 판단을 할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2024-28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결과보고서 중 조직도를 보면 정책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기획조정팀에 금일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는 등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꼭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연 우리는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바로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팀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내지는 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 연간 우리 재단 이용자 수치와 부평구문화재단의 인지도가 연결되지 않는 지점에서는 홍보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이용자를 모객하는 '마케팅'도 홍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역시도 불분명합니다.



가령 대표이사님 혹은 이사장님이 신년사 등을 통해 몇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하면 그 하위개념으로 중분류, 소분류를 통해 사업들을 펼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중 소분류의 내용들만 홍보를 하고 있으니,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큰 틀에서의 사업을 설계하고 또 그 중간 목적성을 가진 세부 사업을 만들어 가고 그 구도가 대외적인 인터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적 접근에 대한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냥 사업 하나하나 '몇 명 올까?' 혹은 '몇 명이 왔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걸 경영평가를 할 때 매년 듣는 이야기입니다. 공연 실적에 대해 어떤 경유로 몇 명이 왔는지를 아무도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자 중 부평구민이 몇 명이고 그 외의 사람은 몇 명인지, 부평구민 안에서도 삼곡동, 청천동 등 각 동에서는 몇 명이 왔는지에 대해 분석해서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통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1차원적으로 전체 모객 인원 집계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집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여기 계시는 모든 직원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년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부 직원들이 문화도시센터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 문화사업본부의 일부 기획 인력들이 문화도시센터로 이동하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정책팀이나 홍보팀 등 기존에 없었던 팀을 만들기 위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그 인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소통을 통해 모두를 위한 합리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에 앞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논의를 거쳐 함께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발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티벌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공공
광복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음

문화도시
콘서트
2007
ESG
문화
포
문화에
영
아티스트
신안국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우리가 재단 종사자로 활동해오면서 이미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기획조정 팀에서 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네.' 라는 지점도 있을 텐데, 일단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 재단이 출범 직후 사무국 체제였다가 순차적으로 아트센터와 도서관과 병합되어 문화재단으로 빌드업이 되었는데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지 않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관에 이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정관을 우리가 과연 읽어보고 있는가, 우리 재단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정성 들여 살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 재단이 설립에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부평구문화재단 설립 정관과 제·규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획경영본부 내 기획조정팀장과 많은 담당자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진흥법 이전에 우리 재단이 있게 한 정관이라는 것이 있



으니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사업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세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단위 사업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 같은 지점을 바라볼 수 없고 사업의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따 종합토론 때 그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이야기입니다. 이수연 대리님의 '부평구문화재단의 브랜딩을 위한 전략'이라는 발제입니다. 이수연 대리님께서 지난 콜로키움 때 하셨던 발언 중 하나만 읽어드리고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꼭 이 오늘 라운드 테이블의 결론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공통의 생각이기도 하고 아니면 후배 직원 여러분이나 임직원들, 고급 간부들도 다 같이 고민하는 지점 같습니다. 김유정 기획조정팀장님이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은 실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시민인식 조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왔다는 건, 만약에 도서관이었다면 인지도는 또 높아질 것이고 도서관이라는 것을 문화재단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화도시부평이라는 이미지가 시민들한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저에게는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브랜드 이미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건 바로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이죠.”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수연 대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던 건 부평구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가 과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문화재단의 도서관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서관본부는 부평구의 지역적인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6개의 도서관이 각 핵심 주제를 관장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개도서관은 어떤 주제를 관장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음악이요)





문화도시부평은 참여정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문화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 조성 정책에 우리 도시가 선정된 것인데요, 이 지역을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건 곧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부평은 과연 어떠한 문화적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며 도서관본부는 지역 주민의 생활권 가까이 위치한 문화적 공간이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부평의 정체성을 지역 주민들이 경험하고 체감하면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도서관본부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은 지역 내 문화거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트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한공근거
강방드
행복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원

부평
문화
콘서트
2007
가곡
ESG
문화
포
문화에
영
아티스트
신안국

[illegible]

첫 번째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시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체감도가 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성남시가 이 문화예술 창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성남이라는 도시 자체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된 도시인데 과연 문화적 정체성을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 '개혁 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 활동과 창조 활동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것을 '사랑방'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문화사랑방 문화클럽'





우리의 경우 6개 도서관도 동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의 경우 동아리들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시민들이 창조 활동을 하면서 개혁작동이 이뤄지고 이 동아리들이 점차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파악하고 그걸 재단이 개혁 정신과 토대도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그 실체가 바로 사랑방인 것입니다. 앞서 성남시는 5대 정책을 내세웠고 5대 정책 안에 그 사랑방이 하나의 추진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방법에는 동네를 포커스로 잡았습니다. 골목이나 공업 상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정해서 문화사랑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도시는 춘천입니다. 춘천이 무슨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생활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춘천이 내세운 도시는 다른 거였는데 '어떤'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춘천의 대표적인 놀이동산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 (레고랜드요)

맞습니다, 레고랜드. 그럼, 레고랜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누가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요?

- (어린이)

맞았습니다, 어린이. 그래서 춘천의 설정은 어린이 도시라고 합니다. 찾아봤던 자료에 보면 '레고랜드'도 있고 'K&G 상상마당'도 있고 이 밖에 어린이 문화시설이 있었고 그 안에 춘천시 청소년도서관도 하나의 역할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도시를 설정한 배경에는 '차상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린이날 차상찬의 소년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어린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과 레고랜드, 춘천인형극제를 연결하여 봄내청

[illegible]

22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건 도서관이 주제를 정하고 관련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부평구문화재단도 문화도시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큰 줄기가 제시되면 각 본부가 그 줄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트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공공근로
강방드
청문회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원

부평
화이트
문화
콘서트
2007
가곡
ESG
문화
포
문화에
영
아티스트
신안국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도서관은 사실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시행령에 따라 여가시설, 문화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외 도서관들의 사업 사례를 영입하면서부터 도서관을 여가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 영역 안에서 고유의 사업으로 볼 것이냐는 고민이 시작되었고 아직도 길라잡이가 되지 않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평구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사업본부에 예술교육팀이 있지만 예술교육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부 영역들은 사실 도서관본부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인문학적인 길라잡이를 할 거냐, 순수하게 시민 예술 교육으로 생애주기별 예술 교육으로 접근할 것이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착안점들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책이 필요한 거고 정책이 수립되고 각 본부 사업들이 단위 사업으로 쪼개졌을 때 거기에 대한 미션값들이 명확하게 내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올해로 문화도시조성사업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 사업 일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는 기관장님들, 대표이사 할 것 없이 '넥스트 무브먼트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발표할 김가람 대리의 토론문에도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발제문을 시작으로 부평구문화재단 20주년을 위한 전환점을 발견하길 바라면서 저도 경청하겠습니다.



사업융합과 거버넌스를 위한 통합 기조

◦ 문화사업본부·문화도시센터 | 시민연대팀 김가람

김가람 문화도시센터 시민연대팀 대리

안녕하세요. 문화사업본부·문화도시센터 콜로키움 내용을 발표하게 된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의 김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은 아니고 당시에 나눴던 유의미한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좀 길 수도 있지만 천천히 ASMR 들듯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콜로키움에서 문화사업본부와 문화도시센터는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점, 문화도시부평, 그리고 거버넌스 사업, 마지막으로 부서 간 협력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점입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아트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꿈나래터, 르네상스센터 등 다양한 거점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6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문화공간 시소, 음악마루, 부평문화사랑방, 르네상스센터까지인데, 현재 조직의 운영 체계가 바로 이 거점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평아트센터를 기반으로 기획경영본부와 문화사업본부가 있고 각 도서관, 수련관도 각각의 단위로 운영그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임정인 팀장님께서서는 거점 운영팀에 대해 제안하셨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미숙 팀장님은 조직도상 공연 기획, 운영 등 유사 업무가 하나의 팀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지역의 예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024-28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결과 보고서 내 조직 개편 제언을 보면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팀으로 구성원이 17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팀워크에도 문제가 있고 팀장의 과업에도 무리가 있기에 이미숙 팀장님은 '파트장'제를 제안했습니다. 조직 구조상 팀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팀 내 파트를 나누고 파트장, 파트원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원활한 업무와 팀워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 거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결국 부평구문화재단의 비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와 대관 업무를 중점으로 하는 예술교육팀의 경우에도 하나의 팀에서 전시와 시민과 밀착으로 진행하는 지역 문화 사업(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어렵고 가깝고도 먼 사이여서 전시랑 교육이 한 카테고리 묶여서 하나의 팀에서 진행된다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서관 본부가 도서관별로 주제가 있는 것처럼 재단도 부서마다의 목적이 있지만 크게는 하나의 줄기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직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도시조성 사업 종료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2025년 12월을 끝으로 종료가 됩니다.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5년간의 성과가 휘발되어서는 안 되기에 남겨야 할 사업, 남았으면 좋겠는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현재 문화도시센터에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 창출 사업인 <뮤직 플로우 페스티벌>,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브 컬처 <언더시티 프로젝트>,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부평 별곳>입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는 크게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남기면 어떻겠느냐고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사업들을 받아서 운영할 부서는 어디인가 자문해 보면 과한 업무로 시달리는 직원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임정인 팀장님을 필두로 (2025년 이후에도) 문화도시 팀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몇몇 타 도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이 20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도시부평을 선언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식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트
오늘도
무사히
브런
화공
강방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원

부평
문화도시
콘서트
2007
가곡
ESG
문화
포
문화에
영
아티스트
신안국

[illegible]

모두 동의했던 것은 이상적인 거버넌스는 너무 막연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미 각 팀에서 협업하고 있는 거버넌스 협의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기획팀은 축제나 공연으로 다양한 팀과 그리고 시민 대행사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예술교육팀은 예술인들이 모여 전시를 매개로 지역의 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공극장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에 시민 참여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거버넌스의 기능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문화도시센터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모여 우리 재단이 진행 중인 사업 모니터링을 하거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도시라는 정책 사업 내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한 결과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문화두레 시민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날 나누었습니다. 재단 후원회와 결합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조력 집단을 만들자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버넌스는 쪼갤수록 힘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평구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였지만, 팀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사업으로 나뉘진 것처럼 결국 시민들은 무언가를 실행해야 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라는 역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민', 그래서 그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하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운드테이블이나 포럼을 하다 보면 좋은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어딘가에서 뮤지션에 대해서 심사하라고 하면 사실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데 가서 그냥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도 나와서 도시,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너무 좋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같은 상황이 도돌이표



제20기 새마을금고중앙회 920대
2011 제1회 이사회 선거
부정구명위원회
2015 화재단
2016 센터
사랑방
통합
카센터 개관
엔터 개관
가추제
대
문화마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각 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및 협의체를 재단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것’으로 정해주시길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쪼개져서 활동하기를. 여기에 우사라 팀장님의 의견을 더하자면 기존 사랑방 운영팀이 운영되었던 시절에는 거기에 갈산 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어서 최대한 그 이점을 살려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거점 운영팀이라는 것도 좋지만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활동 주체들이 집을 나가서 재단의 다양한 거점 내 사무실을 차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재단이 지



역민과 멀다고 느낀다면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각 팀이 거점을 하나씩 맡아 운영하면서 그 거점과 거버넌스를 사업으로 연결 해보는 방법도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어떻게 성과를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OO동 문화기획단>이라는 거버넌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민자치회에게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을 더해서 축제를 하거나 여타 기획물을 운영하시는데 <OO동 문화기획단>이나 문화도시부평을 노출해주시길 요청드리면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재단은 돈만 지급했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세어된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부서별 협업할 때도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앞에 설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에 앞서 먼저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재단과 함께한다는 것에 타 기관들이 민감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업의 성과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예술기획팀에서 진행했던 <부평 키즈 페스티벌>이 그 예 중 하나입니다. 부평의 어린이들을 위한 너무 좋은 페스티벌을 진행하는데 재단 내 어떤 팀이 주축인지, 지자체 내 어떤 기관이 이름을 올리는지 등 때문에 예술기획팀이 같이 하나의 콘텐츠를 진행해 보자 제안해도 쉽사리 하나로 뭉쳐져서 거버넌스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하느냐, 누가 키를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거 하자고 해서 안 할 사람은 없으나 막상 한다고 했을 때 같이 붙어서 할 타 부서가 없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씁쓸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 재단은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 (재단을 전면에 내세우는) 성과를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의 성과도 용인할 수 있는 집단이 되어야 재단을 통한 진정한 거버넌스의 실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재단이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사업을 하는 또 다른 기획 집단인 건지에 대한 합의점과 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와 관련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듯 거버넌스는 구성원들이 작게나마 결과치를 확인함으로써 오는 신뢰와 만족감이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토론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너무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100년 동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재단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버넌스를 시작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이미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해보는 방법 등의 질문을 던지며 발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세 분의 발제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들 머릿속에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과제가 남았을 것입니다. 10분 휴식 후 토론을 위한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티벌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공공근로
강방
행복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원

부평아트센터
문화포럼
2007
가곡
ESG
문화
포럼
아티스트
신안국



2부 | 자유토론

- 도서관본부 | 갈산도서관 김미진
- 기획경영본부 | 기획조정팀 김유정
- 문화도시센터 | 시민연대팀 장선미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교육문화팀 김소연
- 기획경영본부 | 기획조정팀 문희원
- 문화도시센터 | 시민창조팀 임정인
- 문화사업본부 | 예술기획팀 이미숙
- 문화도시센터 | 시민연대팀 김가람
- 도서관본부 | 부개어린이도서관 강은숙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김유정 기획조정 팀장님은 당장 시급한 부분으로 재단 출범 2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기획 혹은 정책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조직도에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도서관본부의 이수연 대리님은 부평아트센터, 문화도시조성사업 중심의 부평구문화재단 사업과 도서관본부 사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단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 도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의 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 했을 때 도서관본부에서도 그에 맞춰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람 대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거점 공간과 시민 활동에 대한 향후 운영 방안,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융합 그중에서도 문화도시조성사업 종료 후에도 재단이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야 할 주요 사업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 거버넌스는 이미 다양한 형



토론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발제들과 관련한 그 어떤 의견이라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진 도서관본부 갈산도서관 팀장

청소년수련관, 성문화센터, 꿈나래터와도 콜로키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각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의 재단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또 인식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이때까지 몰랐던 것이 아닌데 그간 왜 바꾸지 못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좀 전에 김유정 팀장님이 정책 파트가 한 명뿐인 것을 언급하신 것처럼 기획조정팀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전체를 관할해서 묶어내는 역할들,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재단의 사업들을 하나로 브랜딩화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그간 충분히 하셨을 텐데 그동안 이게 왜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도 도서관본부, 청소년수련관이 수행하고 있는 문화의 성격을 잘 노출시켜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문화입니다.'라고 하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고 다들 힘을 모았을 텐데 내부 직원들에게 이것들이 왜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꼭 팀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합니다.





김유정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장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단 전체 사업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 사업대로의 특색이 있고 수련관은 수련관 성문화센터는 또 성문화센터대로. 그러니까 각각 운영하는 시설이나 사업을 꿰고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명이 됐던, 세 명이 됐던 그 정책 고유 파트를 구분해 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팀명도 '기획조정팀'이라고는 하지만 팀명과는 다르게 인사·채용, 이사회, 또 각종 법리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력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인원을 충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현원에서 인력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중 한 명에게 정책 업무를 맡게 한다면 경영지원팀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과정에 대해 밀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업무 분담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가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획조정팀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한계점을 발견하는데, 여기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업무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티벌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공공근로
광명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음

부평
키즈
페스티벌
청소
페스티벌
오늘도
무사히
브런치
공공근로
광명
문화
아트
공연장
대관
유지선지음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첫 번째 질의 내용인 성문화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콜로키움에서 도출된 의견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재원의 출처가 재단 본부와는 달라서 행정적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운영 주체로서 재단 본부 관리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외에 성문화센터의 경우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 시 사업의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던 사례도 언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 위탁기관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긴 하지만 같이 해볼 수 있는 지점을 상호소통으로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의 결합도를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힘이 든다'는 표현이 적정한 것 같지는 않지만, 재단을 전체로 놓고 보면 재단 본부가 가장 큰 상위 조직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포용과 배려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 있어서는 위탁기관과 각 사업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의 출처가 다르므로 사실 사업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의 지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또 기회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체감하는 감정을 기준으로 접근한다면 좀 더 배려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의견이나 궁금증 없으실까요?



장선미 문화도시센터 시민연대팀장

시민연대팀의 경우 문화도시조성사업이 종료되면서 그간 추진했던 활동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징성을 가지는 몇 개의 대표 사업들이 선별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민연대팀 사업도) 이름이나마 거기에 녹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소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교육문화팀 대리

저는 지난 10월에 진행했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콜로키움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콜로키움 함께 진행하셨던 연구원분께서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페스티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본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듣는거나 아니면 반대로 재단 본부에서 추진 상황을 물어본다거나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축제의 담당자로서 그 질문을 받으며 머리를 탁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단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꾸준히 진행해 왔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페스티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도모한다거나, 이번에 문화도시 팀과 조금 협업을 하긴 했었지만, 아니면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교육문화재단으로 따로 출범하지 않고)재단과 계속 함께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협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담당자를 직접 찾아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제가 지난 콜로키움 자료들을 보면서도 의아했던 것은 기관장 회의를 이렇게 반복 학습 하듯이 하는데 각 부서나 기관에 있는 실무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었다는 메시지가 되돌아올까? 였습니다. 이걸 사실 부서장, 기관장님들이 해소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하고 귀담아들겠습니다. 또 혹시 없으신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청소년 페스티벌>과 관련하여 잠깐이지만 문화도시센터와의 협업을 언급하셨는데 이 주제를 이어받아 문화도시센터의 관점에서 지난 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가 또 이런 협업의 형태를 차후에도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지도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임정인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임정인 문화도시센터 시민창조팀장

말하기에 앞서, 전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굴포천천히>를 9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진행했을 때, 처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기획 조정팀에 ESG경영과도 연결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업을 통해 재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하나의 장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람 대리님의 발표를 통해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대표 사업 세 가지를 얘기했음에도 추가로 <굴포천천히> 경우는 지속적으로, 꼭 사업명이나 형태가 지금의 <굴포천천히>가 아니더라도, 환경을 담아내는 축제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추구해야 하는 역할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각 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이 각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들이 달라서 사업을 앞둔 어느 시점부터는 전체 협업을 계획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떨 때는 정말 한두 달 남겨두고 갑자기 부탁을 드리고 또, 무리하게 참여하게 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정책의 맥락에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이 됐든지 그해 협업할 사업은 연초에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협의 테이블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투여 예산이 크든 작든 사업 예산도 편성해





이미숙 문화사업본부 예술기획팀장

<부평 키즈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2019 년도에 당시 공연기획팀에 발령받아 <부평 키즈 페스티벌>를 진행했었고 또 떠나왔다가 올해 다시 맡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내·외부 적으로 당초에 이 축제가 세팅될 때의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김가람 대리님이 발표한 것처럼,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고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사실 거버넌스에 훈련이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거버넌스라는 건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 녀석이라 무형을 쫓는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적인 이해만으로 좇고 있는데 저는 재단이 지 역사회에서의 어떤 문화 예술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부평 키즈 페스티벌>이라는 내부적 거버넌스를 한번 체감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올해 거기에 아주 조금 다가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마을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의 내·외부적인 작동을 조금 끌어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위탁 기관, 타 본부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단순히 협력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누가 주가 될 것이냐'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추진팀 외의 부서에서는 그냥 손님처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아니라 같이 협업하는 부서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해서 쓸 건지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장이 펼쳐지고 나아가 부평의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 가져야 되는 의무를 <부평 키즈 페스티벌>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실체 있는 거버넌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발제하신 각 본부 세 분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가람 문화도시센터 시민연대팀 대리

좀 전에 임정인 팀장님, 장선미 팀장님, 이미숙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협업과 관련하여 저는 어떤 (협업의) 플랫폼 형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지 꼭 어떤 팀의 사업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문화도시센터가 만난 시민들이나 협의체들이 모여서 우리 재단의 20주년 등에 맞춰 기념비적인 협업을 도모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기획조정팀 이승민 대리님이 진행했던 재단 직원 워크숍을 통해 타 부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이 재단 직원으로서 소속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의견 교환의 자리뿐 아니라 그런 화합의 자리가 중간, 중간에 가미돼서 완성도 있는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테이블까지 연결되면 좋지 않을까, 그 과정의 일원으로 저도 참여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콜로키움을 하면서 문화도시센터 정지혜 대리님이 '모든 팀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의지가 있으니,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발제할 때 빠트려서 추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못 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못하고 있는 부분만 너무 들춰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수정하되 하나의 공동 의제를 가지고 협업을 시도해 보고 또 그 과정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환류하면 되게 좋은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부평구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직원들이 지향점이 제각각이고 방향성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재단 본부에서 지난 시도 중에서 부평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선별하여 방향을 잡아준다면 도서관 본부도 그 방향에 맞춰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업 융합이 잘 안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큰 그림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정책적으로 제시해 주기만 한다면, 아마 사업별로는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누가 말해도 '부평구는 ○○인 도시야!'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유정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장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 내지는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에 따른 책임 의식인데 우리는 거버넌스를 주창하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거버넌스는 그저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사업의 협업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 형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부평 키즈 페스티벌>의 예시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외 성문화센터, 꿈나래터의 경우 '청운위'라는 자치 조직이 다 움직이고 있고 3개 기관은 아무래도 사업의 대상이 같아보니 그 결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파이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생활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연의 포맷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동호회들이 축제의 장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양성한 독서 동아리도 혹은 캘리그래피, 전시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한 축제에서 참여 대상의 다양성, 장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배운수 기획경영본부장



보이츠
아트
문화
2007
가족
ESG
문화
포
권
영
아티스트
신안국



부평문화포럼

직원 라운드 테이블 기록집

우리가 점검하는 부평구문화재단

발 행 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발 행 일 2024.12.05.

발 행 인 대표이사 이찬영

편 집 인 기획경영본부장 배운수

기획총괄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장 김유정

기획편집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팀원 문희원